2 · 4보안법 파동

1958년 제 3차 보안법 개정으로 촉발된 2 · 4 보안법 파동으로 수많은 시민과 야당의원들이 시위 과정에서 폭력적인 경찰에게 연행되고 부상자가 속출했다. 야당 국회의원들조차 무장 경찰에게 연행되는 상황이었으니 일반 시민들의 처지는 말할 것도 없었다. 전국에서 국민들이 보안법 개악을 규탄하는 규탄대회와 시위를 벌였으며, 온몸으로 항의하기도 했지만 정권유지를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판단한 이승만 정권에게도 다른 대안이 없었다. 한국 민주주의는 이렇게 처절한 과정을 거치며 생명력을 갖고 성장해왔다. 2 · 4 국회파동을 규탄하며 민권사수 구호가 적힌 유인물을 뿌리는 민주당원.

– 사진 경향신문

쟁기로 밭을 갈고 쇠뿔로 정의를 세워야

기축년(己丑年)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선조들의 전통적 옛 인사를 반복해 올리며 지난해 되새겼던 복(福)의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술잔을 가득 채워 신(神)께 정성을 다하여 바치듯 우리도 서로 그렇게 충만한 복을 기원합니다.

소의 해입니다. 소는 농촌에서 큰 보물입니다. 농사짓고 짐을 나르는 힘 있는 일꾼이며 또 우리에게 일등 고기의 먹이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와 관련한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구약의 유다 문화권에서 소는 부와 힘의 상징이며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봉헌된 가장 아름답고 큰 제물감 이었습니다. 이렇듯 소는 값진 제물로 하느님께 가장 의합하고 또한 사람을 살찌우게 하는 푸짐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는 몸집이 크지만 비교적 순한 동물이기에 온화함의 상징으로도 묘사됩니다.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소는 더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구약의 모든 역사적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하고 그 상징적 의미와 예표적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과거의 모든 역사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숙고하고 종합한 새로운 방법입니다.

저는 이러한 신학적 해석에서 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하나의 암시를 얻습니다. 일제 강점 하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 바치며 싸우셨던 순국선열의 시각에서 그리고 불의한 정권, 곧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으로 이어진 독재정권 체제에 맞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몸 바쳤던 학생, 시민 등 뜻있는 모든 분들의 희생적 관점에서 과거 역사를 종합하고 해석하고 미래를 위한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현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바탕에서입니다. 현 정부의 많은 정책이 순국선열과 자유민주주의 희생자들의 삶과는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역사와 현실을 어떠한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교 교과서 사건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면서 어떻게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거짓 기술을 우리가 꾸짖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7~80년대 유신군부독재 등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하필이면 침략국 일본이 1860년대 제창했던 그 '유신'이란 말마디를 차용하였을까 하며 늘 의문을 제기하고 있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단어를 차용한 자의 독재체제에 맞서 싸울 때 우리 민주동지들을 도와준 일본의 양심적 지성인들, 특히 개신교와 가톨릭 등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심적 일본인들 덕분에 저는 개인적으로 폐쇄적 민족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패쇄적이며 배타적 민족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양심과 지성입니다. 침략국 일본 안에 우리보다 더 한국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진실한 분들을 통해 저는 큰 감동을 받았으며, 반대로 우리 한국인 안에서도 바로 침략국 일본인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더 침략적이며 불의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너무나 부끄럽고 황당했습니다.

1965년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협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그 무리들, 지금도 일제의 강점이 한국 근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는 궤변론자들, 더구나 친일파의 선택이 오히려 조국독립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등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넋 빠진 자들, 한국인이면서도 실제로는 침략국 일본을 더 그리워하는 친일 매국노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엄존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노라면 선열들과 후손들 앞에 머리를 들 수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뉴라이트' 라는 미국식 표현으로 이름을 고치고 옷을 바꾸어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략자들과 친일 매국노들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2009년 새해는 안중근 의사 하얼빈의거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0주년을 맞는 뜻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소의 해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 교부들은 소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소의 뿔은 불의한 세력을 타파하는 정의의 상징으로, 쟁기를 메고 밭을 갈아엎는 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상징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바로 밭입니다. 오만과 독선, 배신과 굳은 마음을 십자가의 쟁기로 갈아엎어 겸허와 낮춤, 신뢰와 포용이라는 아름다운 밭을 일구어 좋은 씨앗을 우리 마음 안에 새로 심어야 합니다.

새해에 우리는 소의 뿔과 쟁기의 힘을 통해 선열들의 고귀한 삶과 민주주의 제단에 몸 바친 희생자들의 열정의 씨앗을 우리 모두 마음속에 새로 심어야 합니다.

희망세상

2009.1 76호
www.kdemocracy.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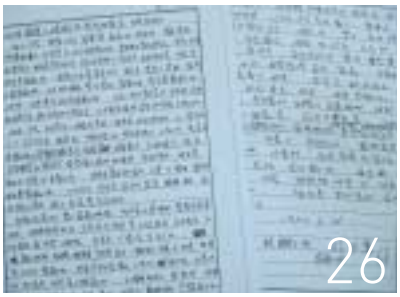
C · O · N · T · E · N · T · S

표지 – 캘리그라피스트 박병철

02 책머리에
쟁기로 밭을 갈고
쇠뿔로 정의를 세워야 | 함세웅

06 다시 보는 역사의 현장
고문으로 얼룩진 오욕을 뒤로하고
인권센터로 바뀐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 김종철

14 특별기고1
국가발전, 민주발전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 정완숙



20 특별기고2
『한국민주화운동사 1』
민주화운동은 운동의 역사일까, 역사의 운동인가 | 정상호

C · O · N · T · E · N · T · S

26 사료이야기

우리의 소중한 꿈이
깨지고 있다 | 어수갑

30 사업회 소식

한국 민주화운동사 총정리판 『한국민주화운동사1』 발간
학술지 〈기억과 전망〉 19호 발간 등
세계와의 대화 민주주의를 민주화하기

36 문화초대석

현장 경험의 리얼리즘
노동자 출신 영화배우 강방식 | 윤승일

42 게시판

44 독자마당

30

36

희망세상 (매월 1회 발행) 등록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서울라 10828 **발행일** 2009년 1월 1일 **발행인** 함세웅 **편집위원** 양경희, 김혜진
편집취재 김종철, 황석선, 양지연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자인** (주)세아미디어 **인쇄처** 신흥피앤피(주)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20 http://www.kdememocracy.or.kr
e-mail webmaster@kdemo.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사업회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